



### 효심을 기르는 추석 명절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계묘(癸卯)년 추석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인데 9월 28일부터 10월3일 개천절까지 하면 추석 연휴는(9월 28일~10월 3일) 6일간 쉬는 날이다. 설날과 추석날은 3일간 쉬는 것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인 효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고 송조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명절 연휴 때 고향과 조상을 찾아 자손들에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것인가? 추석이 되면 귀향하는 사람들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속도로가 차량 행렬로 막혀 평소보다 3~4배의 시간을 소비해서 귀향하고 있다.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은 대부분 조상의 고향이 농촌이고 농촌에서 자라고 성장해 산업사회가 되면서 도시로 진출해 살고 있다.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에 계신 노부모를 만나고 조상의 묘소에 성묘하려고 귀향하고 있고 고향에서 일가친척을 만나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전래풍습에 의한 추석의 전통 놀이를 고향에서 즐기기도 한다. 농경문화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농사는 농부의 노력도 중요 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해야 하고 이러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조상이며 하늘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추석날은 새로 거둔 햅쌀과 햇과일로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풍속이다.

기독교 문화가 전래하면서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의 풍속은 추석날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추석이다. 추석 명절은 우리의 전통적인 효 문화의 큰 맥을 이루는 행사다. 추석날이 되기 전에 조상의 묘소에 별초하고 차례상 차리기 위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나 생선은 가장 좋은 것을 보관했다가 제상에 올리게 된다. 따라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효심에서 우러난 정성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사음식은 차례를 지낸 후 자손들이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먹는다. 추석(秋夕)의 유래는 신라 시대 김쌈놀이인 가배란 별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가위로 변했고 예기(禮記)의

춘조월 추석월(春朝月 秋夕月:봄엔 아침 달, 가을엔 저녁 달)에서 추석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고, 가을의 한가운데라고 해서 중추(中秋)요, 가을이 한창 때 명절이라고 해서 중추佳절(仲秋佳節)이라고 한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옛말로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로 설과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의 하나로서 농경문화의 사회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었다.

올해의 농사는 가누 태풍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보았다. 고향으로의 민족 대 이동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지나온 우리 과거가 전쟁과 가난, 산업화로 말미암아 노동력 인구가 삶을 개척하기 위해 고향을 등졌기 때문일 것이며 타향살이가 고달플수록, 고향을 떠나올 때의 설움이 깊을수록 망향의 한이 사무쳐, 길가에서 한나절을 부대끼며 낱밤을 새우더라도 귀성 대열에 끼여 막속의 고향을 향해 귀향길의 고생을 감수하고 있다.

연어 때가 사력을 다해 태어난 곳을 찾아 이동하는 모천회귀(母川回歸)처럼 인간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인 고향에 대한 향수(鄉愁)본능이다. 추석 때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향을 찾는 효심의 이동이며, 즐거움의 이동이며, 애향심의 이동이며, 활력을 충전하기 위한 이동이다.

추석 명절 때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도 부모와 조상이 있고 일가친척이 있으며 고향이 있음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부모 조상과 고향에 대한 할 일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는, 효심과 애향심을 기르는 추석 한가위 명절이 되어야 한다.

고향에 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고향에서 얻은 물적 심적인 선물을 가득 안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귀경길에 오르게 된다. 추석 명절은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에게 효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활력을 충전해주는 명절로써, 다른 민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명절로 자리를 잡아 더욱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칼럼

기고

### 추석 별초·성묘 앞두고 별 쏘임 사고 예방·응급처치 알아두기

최종수 완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풍요와 결실이 가득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을 앞두고 별초·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별 쏘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기위한 별 쏘임 사고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3년간 별 쏘임 사고 평균을 보면 78.8%가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에만 별 쏘임으로 11명이 숨지고 6천439명이 부상을 입었고 3년간 연평균 사망자는 9.7명으로 집계되어 추석 명절 별초·성묘 등을 앞두고 별 쏘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별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별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냄새의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하며 단 성분을 좋아하므로 달콤한 음료 등에는 별이 모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별은 검고 어두운색의 옷에 공격성을 보이므로 흰색 및 밝은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긴팔, 긴바지를 입어 팔과 다리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별집을 발견할 시에는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별집에 접촉하였다면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자리를 피해야 하며

별에 쏘였다면 쏘인 부위는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가볍게 밀어 별집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며, 호흡곤란과 경련,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아야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친지와 함께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해본다.

#### 생활정보전화

####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법률구조상담	132
▲응급질병상담	1399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정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 올 추석 고향집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이창현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연기 등을 감지, 내장된 경보장치가 작동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줘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족·친지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올해 추석 명절에는 부모님·친지에게 안전과 정성이 담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며 우리 모두의 안전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 곧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언제나 그렇듯 추석 명절은 가족과 친지 등 모든 사람이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선물하는 즐거운 날이다.

이번 추석에는 현금이나 상품 대신 멀리 떨어져 늘 가족들 걱정에도 노심조사하지 말고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화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화재 시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해 두는 건 소방차 한 대를 곁에 두는 것과 같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